

| 권두언 |

## “모든 사회적 대화는 옳다”

지난 10월 11일, 제5차 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5차라는 차수 이면에는 제2차(3.7) 회의부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의결하지 못한 채 세 차례 개의만 하였던 지난 7개월 간의 어려웠던 그림자가 배어 있다. 아마 지난 7개월 동안 사회적 대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면서 고군분투 하였던 노동계층 세 위원들과 공익위원들께, 그 과정을 곁에서 함께 했던 당사자로서 깊은 안타까움, 죄송함, 그리고 감사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본위원회에서 청년대표 노동계층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문유진 위원은 “모든 대화는 옳다”고 한 이철수 교수의 언급을 인용하며 인사말을 하였는데 듣고 보니 이 말이 갖는 여러 복합적 의미가 연상되면서 공감이 갔다. 전에 읽었던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속에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는 옳지만, 우리가 옳다고 늘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처럼 “옳다”의 의미는 일종의 어떤 당위의 윤리적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의 삶과 과거 역사들이 증명하듯이 “옳음”이 늘 행복하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어쩌면 사람들의 불행은 “옳음”을 추구하려는 적극적 실천 행위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지난 7개월 간의 어려움은 이를 오롯이 증명했던 과정이 아니었던가 한다. 즉 “모든 대화는 옳다”라는 매우 강한 명제가 공감이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절박성과 긴장감이 강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처럼 이번 호에서는 제5차 본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주요 진행경과 및 내용들이 첫 꼭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



**이덕재**  
본지 편집위원장

문(안)이 마침내 의결처리 되면서 탄력근로 관련 합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의 파행은 형식적으로 일단락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새롭게 위촉된 황세원 및 문유진 위원께서 탄력근로 관련 합의에 대해 노동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강도 높게 제안하며 팽팽한 긴장이 이어졌고 전체 위원들은 이러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번 호 <기획 대담>은 “코끼리 옮기기’ 연금개혁...이제부터가 진짜다”라는 제목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다루었다. 제목의 부제가 “연금개혁 사회적 대화, 절반의 성공”으로 부쳐져 있는데 이는 작년 10월부터 논의해 온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지난 8.30을 끝으로 핵심쟁점이었던 보험요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해 다수안, 현행유지, 소수안으로 최종 단일안 합의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횡적으로 전국민의 이해가 걸려있고 종적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의 이해도 걸려있는 이 복잡한 의제에 본질적으로 단일합의안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적 대화의 허약함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이번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나머지 절반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특위 논의의 비워져 있는 부분들을 지면을 통해 보다 풍부하게 다루어 보자는 취지에서 대담이 마련되었다. 대담에는 특위를 담당하였던 송해순 전문위원의 사회 속에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연금논의의 전문가인 오건호 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본인이 참여하여 특위 논의를 넘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전반 및 향후 논의 방향 등을 풍부하게 제안 하였다.

이번 호 <사회적 대화 논단>은 “버스운수산업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대화의 과제”(구미현 전문위원)와 “다변화하는 우정사업 노사관계 : ‘사회적 대화’에 길이 있다”(구은희 전문위원) 두 편의 글이 실렸다. 이 두 편의 글은 산업변화(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노사갈등 양상의 변화와 사회적 대화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는데 특히 최근 버스파업(5월) 및 우정노조파업(6월)이라는 현안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 데 따른 것이었다. 글에서 구미현 전문위원은 버스운수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과제로 우선 기존 기업별 노조시스템과 중앙정부 주도의 한계를 넘어 버스운수업종 단위의 사회적 대화 안착과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 역할, 그리고 채용조달 마련 관련 정부 외에 노사 각각의 역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구은희 전문위원은 우정사업 내 구조적 노동문제로 장시간 노동 등 건강 및 안전, 비정규직 차별 및 열악한 처우,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위 문제를 확인하면서 신(新)-구(舊) 노사관계의 조응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호 <사회적 대화 좌담>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개월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하였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ILO협약 190호와 연계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면서 기업 수준의 신뢰가 안정적 사회적 대화의 기본 단위라는 의미를 확인해보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좌담에는 김민아 대표(노동교육센터 늘봄), 진기숙 사무처장(연세의료원 노조), 최혜인 노무사(직장갑질 119), 홍종선 팀장(한국경총 근로기준정책팀) 그리고 사회로 김종진 부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 참여하였다.

<전문위원 정책스케치>에서는 이지은 전문위원이 최근 발표된(10.22) “금융산업 발전 및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공동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다루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에서 현재 금융산

업 종사자들의 근로실태 및 인식 확인을 위한 공동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여 약 6개월 동안 노사정이 긴밀하게 노력한 결과이다. 금융산업이 직면한 환경, 노동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견해, 임금 및 임금 체계 등 핵심적 사안들에 대한 풍부한 조사결과가 담겨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노사정이 질문지 구성, 설문조사 방식, 결과에 대한 심층적 논의 등이 긴밀하게 진행되어 과정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대화의 과정이었다는 별도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호 <사회적 대화 현장>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다루었다. 이미 잘 알려졌듯이 전북 군산은 군산 GDRP(지역 내 총생산)의 23.4%,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43%)를 차지하였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지역경제가 치명적 타격을 받은 곳이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하면서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자립적 상생모델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이 노력의 결실이 지난 10월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으로 이어졌다. 모쪼록 지역공동체의 커다란 이해 속에 각 주체들의 헌신적 노력과 사회적 합의로 한국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

끝으로 <사회적 대화 국제 동향>에서는 손옥이 국제협력 전문위원이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이사국이자 아시아대륙 사무부총장 국가로서 '19.10.9~10.11 동안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 및 AICESIS-ILO 공동 컨퍼런스에 참석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격월간 <사회적대화>(9-10월호)가 풍성하게 발간될 수 있도록 귀중한 원고를 주신 필자들, 소중한 말씀들을 해주신 각종 대담 및 좌담의 패널들, 그리고 제작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